

미국장로교 행동주간 2021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예배

8 월 29 일, 주일

성령강림 주간 후 14 번째 주일/ 일반 주간 17

본 예배 순서 및 요소는 총기 폭력 사태와 관련된 예배에서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예배 시작

예배로의 부름

양초 세 개를 준비해 '예배로의 부름' 때에 켜도록 함

성도 1: 탄식, 헌신, 희망 가운데 오늘 여기에 모여 우리는 _____에서

희생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총기 폭력으로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적는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기쁨을 위해, 학업을 위해, 교제를 위해, 돋기 위해, 찬양을 위해 일상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폭력과 증오로 인해 끝났습니다.

성도 2: 그들의 삶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힙니다; 폭력과 상실로 인해 그 삶이

무너진 수많은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미국에서 일반인들에게 벌어지는 폭력이 제지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군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을 회개와 슬픔 가운데 인식합니다.

성도 3: 지금은 종식의 때이며, 동시에 시작의 때입니다.

희생자들, 그들의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또 정의, 존엄, 평화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비전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힙니다.
첫번째 양초를 켠다.

성도 4: 지금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증오와 총기 폭력으로 희생된 그들의 삶을 위해 이 촛불을 밝힙니다.

두번째 양초를 켠다.

다같이: 지금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위한 때입니다.

폭력과 증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세번째 양초를 켠다.

찬송가 #764 GTG PELAS DORES DESTE MUNDO

고난과 고통 때문에/Pelas Dores Deste Mundo

또는 개회찬송 목록을 부록A에서 확인해 볼 것.

고백으로의 부름

1967년 신앙 고백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보냄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동체, 곧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를 위탁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적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약속된 재림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사람으로서의 그의 생활은 인간의 일반 생활과 교회를 연결시킨다. 인간을 향한 그의 봉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위탁한다. 그의 수난은 교회가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각종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만든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향하여 가진 사람의 잔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정 가운데서 꾸민 잔인한 공모의 무서운 결과들을 교회에게 드러내 보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재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회에서 사람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극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

(1967년 신앙 고백 9.31-32)

회개의 기도 (다같이)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화가 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상처와 폭력의 세상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슬픔과 상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끊임없는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지 못해 우리의 영은 지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들을 봅니다.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안된다!"고 말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행진하고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우리가 모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해 우리는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의의

정화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행동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힘없는 팔을 강건케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며, 서로를
돕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정의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를 위한 침묵의 시간

회복으로의 초대 IONA

두려워하지 말라

다같이 부름

축복의 말씀 (시편 126 편, 인용)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정의, 존엄, 평화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스도의 평화 나누기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의 징표를 나눈다.

묵상의 시간

깨달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잠잠히 머물러 봅시다.
거룩한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희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전심으로 들읍시다.
아멘.

성경 봉독

일반 성구집의 오늘 날짜에 나와있는 성경 본문을 택하거나 부록 B에 있는 본문을 택할 것.

설교

찬송 Amazing Grace/My Chains Are Gone Chris Tomlin

혹은 설교 후 부를 수 있는 찬양목록을 부록A에서 찾아볼 것.

실천

믿음의 확인 벨하 신앙고백

성도: 우리는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십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를 행하십니다.

다같이: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전우주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로서,

전 인류로부터 함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선포합니다.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가

하나되는 교회를 낳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같이: 교회의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분열과 증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임을 믿습니다.

다같이: 인종, 계급, 성, 문화가 이 교회에 속하는 이를

결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화해를 선포하고 구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구축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및 증오, 쓴뿌리, 적개심의 권세를 정복했음을 믿고 증거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정복했습니다.

다같이: **복음이 사람들을 그의 인종, 성, 계급, 문화에 따라**

분리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해의 권능은 그러합니다.

성도: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시길 원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같이: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를 보호하시며 악인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 하며,

불의에 항거하며, 불의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함을 믿습니다.

다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거부하며,

모든 형태의 불의와 이 불의를 허용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

현신적으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성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부와 법이 이를 반대해도 말입니다.

형벌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말입니다.

다같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봉헌

현금, 십일조에 더불어, 총기 폭력 근절을 옹호하는 편지를 지역, 주, 연방 정부 지도자에게 보내도록 써서 이 시간에 내는 것도 고려해조십시오.

현금과 행동과 옹호를 봉헌하기 #750 GTG

Goodness is Stronger Than Evil (선은 악보다 강하네)

Goodness is stronger than evil, love is stronger than hate.
Light is stronger than darkness, life is stronger than death.
Victory is ours, victory is ours through God who loves us.
Victory is ours, victory is ours through God who loves us.

회중 기도/ 주기도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부서진 세상에서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상처입은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나아갑니다.

크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

우리 안의 폭력을 다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회복과 치유를 이루실 수 있기에, 당신의 구속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크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

상처입은 모든 이들을 오늘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당신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게 하소서.

죽음의 골짜기 너머에 있는 빛을 찾을 때 우리를 인도하소서.

치유, 정의, 용기의 기도를 소리내어 할 수 있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되어 특별히 그리스도인 평화의 사도로서 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에 대한 비전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창조주)...

파송

폐회 찬송 #103 O-SO-SO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임무 부여

성도: 샌버나디노에서 살해된 사람들을 위한 철야 기도에서, 동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반스 주교는 "아멘"을 저녁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며, 들은 말들에 대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다음엔 무엇을 합니까? 이 교회 문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로 무엇을 할까요?"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행동을 인도하시도록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이웃이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정의와 평화에 더 헌신하며, 우리의 가정, 공동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더 분명히 증거하도록 하심을 깨달읍시다. 우리의 '아멘'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운 제자로의 부르심이 되게 합시다.

다같이: **아멘!** 우리의 슬픔이 단순한 감정 이상이 되게 하며, 우리의 "아멘"이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이웃을 포용과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축복

긍휼,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을 이 세상에서 그의 손과 마음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록 A

총기 폭력 해결을 위한 찬송 및 찬양

장로교 찬송가 (1990)

- God of Earth and Altar p. 291
- Lord, Make Us Servants of Your Peace p. 374
- Song of Hope p. 432
- Day of Peace p. 450

Glory to God (2013)

- Come Great God of all the Ages, p. 309
- How Clear is Our Vocation, Lord, p. 432
- God of Compassion, in Mercy Befriend Us, p. 436
- I've Got Peace Like a River, p. 623
- We Wait the Peaceful Kingdom, p. 378
- Dona Nobis Pacem, p. 752
-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p. 753
- For the Troubles and the Sufferings/Pelas Dores Deste Mundo, p. 764
- How Long, O God, Will My Prayers Be in Vain? p. 779
- In Deepest Night, p. 785
- God Weeps With Us Who Weep and Mourn, p. 787
- There is a Balm in Gilead, p. 792
- We Cannot Measure How You Heal, p. 797

그 외의 찬송들

예배에 찬송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장로교 찬송가 작곡가 캐롤린 윈프리 질렛과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범 교회 그룹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림:

- [I Cried to God](#) FINLANDIA 11.10.11.10.11.10 ("Be Still, My Soul") 은 원래 2015년도에 발생한 움프과 커뮤니티 칼리지 총격 사건 후에 만들어졌다
- [God of Mercy, You Have Shown Us](#)^{SEP} BEACH SPRING 8.7.8.7 D ("God Whose Giving Knows No Ending") was originally written at the request of the PCUSA UN Office for the 2009 International Day of Peace
- [God, We Have Heard It](#) HERZLIEBSTER JESU 11.11.11.5 ("Ah, Holy Jesus") 은

원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태의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

- O Christ, You Did No Violence^[11] AURELIA 7.6.7.6 D ("The Church's One Foundation") 은 원래 Christian Reflection 잡지 판의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다.
 - They Met to Read the Bible ST. CHRISTOPHER 7.6.8.6.8.6.8.6 ("Beneath the Cross of Jesus") 는 원래 찰스턴의 Emanuel AME Church 총격 사태 후에 쓰여졌다 (찰스턴을 위해 새 찬송가 | The New Yorker)
 - When People Die by Hatred AURELIA 7.6.7.6 D ("The Church's One Foundation") 는 댈러스에서 발생한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경찰이 희생된 총격 사건 후에 쓰여졌다
- To a Place of Celebration EBENEZER 8.7.8.7 D ("Why Do Nations Rage Together") 는 2016년도의 올랜도 퀸스 나이트클럽 총격 사태 후에 쓰여졌다. (참조. A Hymn for Orlando National Public Radio)

<http://carolynshymns.com/index.html>를 참고할 것

찬양

- "Amazing Grace/My Chains Are Gone" by Chris Tomlin
- "Still" by Reuben Morgan
- "Healing is in Your Hands" by Chris Tomlin, Christy Nockels, Daniel Carson, Matt Redman, Nathan Nockels
- "Oceans (Where Feet May Fail)" by Joel Houston, Matt Crocker, Salomon Lightheim
- "10,000 Reasons" by Matt Redman
- "Blessings" by Laura Story
- "Healing Rain" by Michael W. Smith
- "In Christ Alone" by Keith Getty, Stuart Townend
- "Even When it Hurts" by Joel Houston
- "That Where I Am" by Rich Mullins
- *When Grief is Raw: Songs for Times of Sorrow and Bereavement*, a collection by John L. Bell and Graham Maule, the Iona Community.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1997.

부록 B

총기 폭력 사태와 관련된 성경 구절

여기의 내용들이 총기 폭력, 공적 폭력, 대량 학살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 본문들을 다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만연한 총기 폭력 사태와 이를 저지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에 대한 성경공부, 설교, 묵상을 인도하는 성경 본문들의 일부일 뿐이다.

구약의 본문들

- 창세기 1:27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 출애굽기 20:13 - 살인하지 말라
- 레위기 19 -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화
- 신명기 21:1-9 -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지라
- 신명기 30:11; 19-20 - 네가 살아갈 삶을 선택하라
- 이사야 2:3-4 -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 이사야 9:5-7 -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 이사야 11:1-9 - 평화의 비전
- 이사야 30:9 -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들
- 이사야 40:1-11 -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
- 이사야 58:12 -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라
- 예레미야 29:1 - 도시의 안녕을 추구하라
- 스가랴 8:1 - 새예루살렘에 대한 스가랴의 비전

신약의 본문들

- 마태복음 5:9 - 평화하게 하는 이는 복되다
- 마태복음 5:13 - 세상의 빛과 소금
- 마태복음 6:10 -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 마태복음 19:19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마태복음 26:52 - 칼에 의지하는 자는 칼로 죽는다

- 누가복음 10:25-28 - 생각이 중요하다. 대사명
- 누가복음 22:47-53 - 예수와 폭력
- 고린도전서 13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고린도후서 5:16 -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다
- 갈라디아서 6:7-10 - 낙심하지 말라
- 에베소서 6:10 - 악과 싸우라
- 빌립보서 2:1 - 그리스도의 마음
- 계시록 5:9-13 - 죽임 당한 어린양이 악을 이겼음
- 계시록 11:15 -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
- 계시록 19:6 -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